

광주시 “도심을 빌려드립니다” 실증도시 구축 ‘속도’

강기정 시장, 쌍암제서 ‘정책 소풍’ 창업기업 실증현장 5곳 방문 올해 44개 기업 추가 모집·지원

광주시가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창업기업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는 등 ‘실증도시 광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7일 첨단 창업제 등 도심 내 실증현장 5곳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정책 소풍’을 진행했다. 강 시장은 이날 쌍암제에서 제품 실증을 시작한 ㈜에코엔의 ‘자율주행 수상 힐링보트’를 직접 타보고, ‘저수지 수질 및 악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휴텍산업)’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인명구조장 자동관리 시스템(㈜에스티테크)’ 등도 살펴봤다.

강 시장은 이어 광산구 첨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증 중인 ‘스트레스 사위실(㈜메가웍스)’ 제품과

신장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실증 중인 ‘버스정류장 탑승자 유무 표시장치’를 현장 점검했다.

‘버스정류장 탑승자 유무 표시장치’ 제품을 실증 중인 이창주 ㈜아이테크 대표는 “광주시 기업실증 정책 덕분에 개발한 제품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이번 실증을 하면서 승객, 버스기사 설문 등을 진행해 기술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혁신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상용화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광주 도시를 실증공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실증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광주 도심에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6개 기업은 관련 사업 진행을 준비 중이다. 광주시는 올해는 44개 기업을 추가로 모집·지원하는 등 실증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또 지난해 ‘실증도시팀’을 신설하는 등



강기정 광주시장이 17일 오후 광산구 쌍암제를 찾아 ㈜에코엔 기업에서 실증 테스트 중인 자율주행 수상 힐링보트에 탑승해 수질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혁신기술 기업 실증 관련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했으며, 기업실증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소해 기업들

의 실증사업을 돕고 있다. 덕분에 광주시와 자치구, 교육청, 공사, 공단, 대학, 병원 등 24개 기관이

실증도시 광주를 선언하고, 테스트베드 구현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창업기업을 위해 광주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도심 곳곳을 실증의 현장으로 바꾸고, 기업의 성장을 돕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증 기회도시 광주’를 통해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이 광주에서 성공하고, 광주 발전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강기정 시장 등 광주시 대표단은 광주시 도시계획 청사진 마련을 위해 18일부터 21일까지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를 방문한다.

광주시 대표단은 일본의 도시계획 성공 지역 시찰을 통해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복합공간 조성 및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등 광주의 도시재생 방향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대표단은 도쿄 아리아케 가든과 미드타운 야에스, 아자부다이 힐스, 롯본기 힐스 등을 둘러보고, 요코하마에서는 미나토미라이 지구를 방문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공공기관 ‘부적절 채용’ 무더기 적발

감사위, 13건 14명 징계 요구...접수기한·블라인드 규정 등 어겨

광주시 감사에서 접수 기한을 어기고, 블라인드 채용 규정 등을 무시한 광주 공공기관들이 대거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17일 지방공공기관 채용 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는 총 13건을 적발하고, 담당자 4명 문책, 3명 경고, 7명 주의 등 총 14명의 신분상 조치를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구체적 채용 업무 위반 사항을 살펴 보면, 광주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원장 후보자 접수 과정에서 서류 접수 마감일이 이를 지났음에도 후보자 A씨가 앞서 제출한 자기 검증 기술서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

광주문화재단 근무자였던 A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진흥원 직원들이 점심시간

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제보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진흥원 간부 B씨가 이를 듣고 서류를 교체해주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지만 실무 직원이 지시를 따르지 않아 서류 교체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A씨가 원장으로 채용되지도 않았다.

또 광주경제교육진흥원생일자리재단은 과거 공무원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 규정을 어긴 채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거나 신규 직원 임용 시 음주운전 벌금형 이력 등 범죄경력 조회 절차를 누락했다.

광주시체육회 담당자들도 전문체육지도자 채용 시험에서 특정 후보가 ‘하’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합격 처리하지 않고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 요구를 받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관광진흥기금 120억 저리 융자

지역 관광산업 진흥에 주력하고 전남도가 관광업계를 위해 상반기 70억원을 비롯해 올해 모두 120억원을 금리 1%로 대출한다. 관광진흥기금 융자 대상은 관광숙박업과 관광펜션업, 야영장업 및 한옥체험업, 여행업 등 민간 관광사업체의 시설 확충 및 운영 자금이다.

융자 한도는 대상 업종 및 용도에 따라 1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이다. 상환조건은 개보수는 2년 거

치 3년, 증축은 3년 거치 4년, 신축은 4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다.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접수 기간은 2월 2일까지다. 사업체 소재지 시·군 관광부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장은 “코로나19 이후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맞춰 관광업계의 민간투자시설 활성화를 위해 올해 120억 원을 지원하고 금리

는 1% 저금리로 적용한다”며 “올해부터 3년간 열리는 2024-2026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우수한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만큼 관광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13년부터 관광진흥기금 620여억원을 조성해 현재까지 지역 125개 업체에 464억원을 지원, 관광업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전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나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에너지 융복합단지’ 활성화 근거 마련

특별법 국회 통과...광주·전남 혁신도시 투자 촉진 등 기대

최근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본격 활성화될 전망이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지역의 대규모 에너지 발전시설과 에너지 관련 기업·기관·연구소 등을 하나로 묶어 협력을 촉진하고 정부가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일대(18.92km)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지정된 바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신정훈·송갑석 의원 등이 발의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향후 단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존 법안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해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지

에서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과 운영위원회 규정이 없는 등 실질적 지원체계가 미비했지만 개정안은 에너지 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을 한전 등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전남 에너지융복합단지 내 에너지 특화기업으로 선정된 98개 기업의 경우 관련법 개정으로 사업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용보조금 등 지급,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우대 등도 포함되면서 융복합단지로 관련 기업 입주 및 투자에도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의 전략산업인 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투자 촉진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 나선다

65세이상·기초생활수급자 등 2500명 대상 치유 프로그램

전남도가 도내 취약계층의 정신 건강을 위해 다양한 검사·진단·힐링을 제공하기 위해 17일부터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흥에 위치한 통합의료병원의 전남도마음건강치유센터에서 제공하는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통합치료와 심리치유가 융합된 치유 프로그램이다.

올해 사업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양한 연령층이다. 149회에 걸쳐 2500명에게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참가자는 스트레스, 근골격계, 사상체질 등 다양한 검사 등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 전·후 몸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장흥 우드랜드 편백 숲, 힐링로드 산책 등 참여 일수에 따라 힐링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다. 전남도는 차별화된 우수 정신건강

치유 프로그램을 도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사업 설명 및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사업비로 복권기금 10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앞서 2020년 11월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해 통합의료병원 2층을 리모델링하고, 2022년 120회 1877명, 2023년 148회 2334명에게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마음건강치유센터는 치유 프로그램 개선 방안,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참여자에게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2년 96.39%, 2023년 97.1%가 만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은 연중 운영되며, 자세한 내용과 참여 신청은 각 시·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

Environmental & Engineering Service Provider

주식회사 누리

(주)누리는 2014년 설립한 환경분야 전문회사로 지난 10여년 동안 더 맑고 깨끗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및 종합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여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양시 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양시 석수공공하수처리시설

구례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완도군 신기공공하수처리시설

강진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영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남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남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한양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nuri 주식회사 누리
Environmental & Engineering Service
전남 남주시 산포면 산남로 141, 제201호